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
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
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
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
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
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
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

●보발곳: 우 110-170
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-33
현대불교신문사
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
●FAX: (02)737-0637/8
●PC통신: 인터넷부디피아
http://www.buddhapia.com/mem/ha
nmaum

법공양 페이지

한마음속엔 온누리 덮고도 남음 있어

15년에서 계속

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게 되죠. 그래서 생
각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정
말로 이 도리를 알아서 함께 하는 것은
천양지차라는 겁니다.

어머니 암이 재발했어요

문 스님, 안녕하십니까. 편지로 처음
인사드립니다.
많은 생각을 하다 결국 편지로 스님께
여쭙어 보려고 몇 자 적습니다.
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근면한 가정입
니다. 그런데 3년전에 어머니가 대장암에
걸리셔서 수술을 한 후 99년 올해 의학
머리가 돌아가신 충격인지 병이 재발하
셔서 암부병중 이십니다. 다행히 제가 결
혼을 안했기 때문에 환자 주변을 조금씩
보살필 수 있습니다만 잘 드시지 않으서
서 마음이 심란합니다.
전에 남동생에게 들었으니 스님이 한
남자분에게 (암에 걸린) 감자물이나 삶아

알고 있지만 진전도 별로 없고, 수련하려
고 노력해도 잠시 잠깐 뿐입니다. 머리로
는 되는데 가슴으로 순수한 열정이 생기
지 않습니다. 스님 어떻게 하면 순수한
열정 그 자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. 스님
의 크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

답 내가 미국 L.A에 갔을 때의 일인
데,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
나에 가아할텐데 그날 아주 피곤한 것
같아서... 콜로라도에서 바로 와 가지고선
설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깐 너무 피곤했
습니다. 그래서 잠시 누웠는데 스님들도
영 가질 못하게 하니깐 피가 조금 남디
다. 그래서 '나도 좀 쉬어볼까?' 이러구
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. 스님이 오실
줄 알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, 안
오신다면 어떡하느냐고 엉엉 우는 겁니
다. 그 순간 말입니다. 피로했던 것도 어
디 가고 하늘이 그냥 가로막는다 하더래
도 가아지 하는 생각이 나서서 왈작
어나는 기분이에요. '가아지!' 아, 그리
니깐 일어나집시다. 이 세상이 다 가로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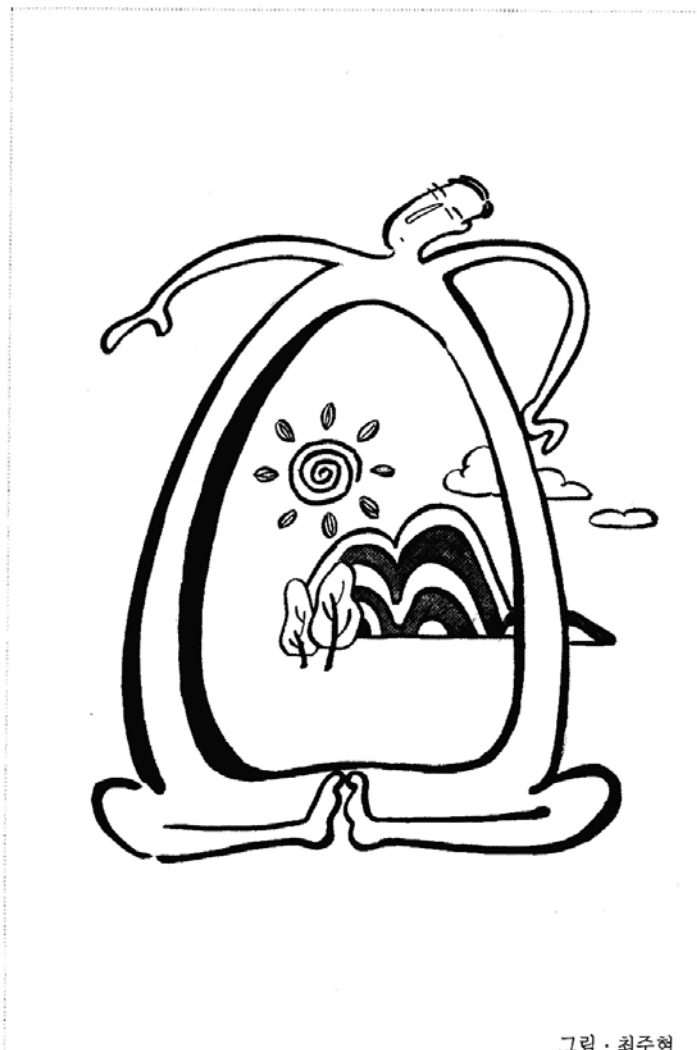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안에서 생명들이 작용하는 것을
믿고 마음나는대로 행하세요
좋고 안좋고 떠나 무조건 놓아요

먹던지 한마디 하신것이 좋은 결과를 봤
고 하길래 저희도 따라하긴 해 봤는
데...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음식이 좋
을지 여쭙보고 싶어서요. 제가 풍상사라면
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저도 웃을 일이
지만 저희는 그만큼 마음이 어렵습니다.
스님이, 신문에 적으신 여러 말씀들을 생
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데 어머니가
아파 하실때 마다 훌쩍져 버립니다.

요즘은 어머니 품에 돌아가신 외할머
니까지 나타났다고 하니, 접이나 보러
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풍
상사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병원에 이렇게 많
은 환자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어머니만
살려달라고 비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
사람이나 병들고 죽는 것이 이치겠지..
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부리나 아니면 편
지까지 써 가며 호들갑인가. 우습지만 이
토록 제 머리속이 복잡합니다. 동생은 시
간이 나면 찾아가 뵙자고 하지만 제 생
각엔 스님 얼굴이나 볼수 있을꺼해서 이
렇게 몇 자 적습니다. 어리석은 저희에게
몇 말씀 부탁드립니다.

문 여러분한테 댁 때어먹듯이 애길
해도 글썽, 내가... 병이 나서 정말
고칠 수가 없다는 병도, 병이 났으면 자
기네들이 그저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생
치고 매일 왔다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
건데 나한테 전부 안겨요. 나한테, 누가
대신해 주나, 과거에 짊어진 것을. 내
가 만약에 해줄 수 있는 재주가 있다 하
더라도 그것은 해줘서는 안돼요. 왜냐
그게 무더지면은 남한테 바라는 것만 알
지 자기가 할 줄은 모르거든요. 할 줄만
안다면 세상생애에 벗어날 수가 있는데
할 줄을 모르니까 그거는 해줘도 안 되
는 법이죠. 그래서 놓으라고 한마디하면
그거 달 떨어지기 전에 집안 얘기합니다.
그건 아랑곳없이 말입니다. 마음이 다급
해서 어떤거라도 하려고 하는데 글썽
요, 오히려 더 열심히 관하는게 좋지 않
겠습니까, 본인 주인공자리를 믿고 더 간
절히 관해 보세요.

머리론 되는데 열정 없어요

문 스님께 감사 드립니다. 감로수와
같은 법문을 저에게 항상 빛이 됩
니다. 98년도 1년간을 부산지인 청년법회
에 다녔고,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법회
에 안나가지만 큰스님의 깊은 뜻은 항상
빛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. 10년전 라즈니
쉬의 책을 읽고 깨달음에 목말라 했습니
다. 그러나 순수한 열정이 생기지 않아서
인지 그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.
10년 전보다 성장한 것은 별로 없고 삼
의 집만 더 무거워 지는 것 같습니다. 머
리속으로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즐기
고, 내 인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함을

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로막을 수가
없는 겁니다. 그러듯이 좀 열정있게 해
보십시오. 그러구 전생애 나왔으면 그냥
전진하는 겁니다. 그렇게 좀더 우리가 빠
릿빠릿하게 결사적으로, 내가 이 길을 걸
지 않는다면 세계생애에 도달할거다, 그
리고 내가 위로 빛을 갈아야 할 부모도
건질 수가 없고, 아래로 뿌려 는 자식들
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. 이러
는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.

10년은 공부해야 한다는데...

문 안녕하십니까? 포항 고불선원에
다니는 최진규라는 불자입니다.
저는 새벽4시에 예불 드리고 04:20~05:00,
05:10~06:00에 걸쳐 참선하고 있습니다.

스님들도 10년은 공부해야 좀 느낀다고
하더군요. 그런데 화두를
- '참 나'와 '가짜 나'를 볼 수 있는
가?
-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되는가?
- 그렇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수 없
으니 참 나를 거짓 나에 비추고 가짜 나
를 참 나에 비추면 될 것이 아닌가!
- 그럼 나의 이 조그만 수행으로 볼
수 있다면 그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? 나
도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자격은 되
는가... 만약 볼 수 있다해도 까마득한
세월이 필요할 거야...

①참선 하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라
면 이것이 깨달은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
이 없어졌습니다.(오랜 동안 정진 후에
나타나는 결과이니 말입니다.) 좋은 가르
침 바랍니다.

②그리고 직장 다니고 새벽에 참선하
니 운동 피곤하여 근무하는데 여간 고충
이 아닙니다. 어쩌면 좋을 지 고민입니
다. 나무서기모니불 나무서기모니불 나무
시아분사 석가모니불

문 이 몸 나온게 화두입니다. 이 세
상에 내가 색이자 즉 공이고 공이자
즉 색이니 어찌 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
애깁니다. 그러나 공해서 텅 비었다는 거

는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닙니다. 너무 참
나찰나 화해 하면서 돌아가니까 공했다
는 거죠. 그러니 공한데서 나오는 거 공
한 데다 나와지... 이것이 화두예요. 내
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, 내가 이
세상에 난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. 이 몸
통이가 화두거를 공한 데다가 또 화두를
잡어?
예전에 석존시대에는 화두를 따로 주
지 않았고 부처님을 따로 모셔놓지 않았

르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판
데는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그러는데 여
기에서는 앉아서 좌선하는 것도 서서 일
하는 것도 또는 화상실에 가서 풍누는
것도 참선이라고 가르치는 원인은 바로
그러한 모든 걸 종합해서 가르치기 위하
고 어떠한 점도 이즈러지지 않게 가르
치기 위해서입니다.
이것이 떠 데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
고 부처님 말씀만, 우리가 살고 있는 이

언덕을 넘어서지 못한 증거입니다.
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서라는
얘기는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
예요.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거기 놓고
슬기롭게 웃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. 그대
로 진리를 한번 보세요. 내가 아무리 진
리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좀 보라고
해도 그게 반질만 들어가니 전체가 다
들어가지 않아요. 두 가지가 있는데, 그
자리를 붙잡고 자기가 정말 자기 셋발을
봐서 둘 아닌 거를 알게 되느냐. 그럼 세
계생상을 알게 되죠.
그런데 그걸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래
도 그 풍을 잡고, 내가 지금 말하는 이
백작장 하나 사이의 차원의 근기를 편안
하게 놓고 한번 보세요. 그대로 구멍들이
들어오는 것도 거기, 새물이 들어오는 것
도 거기, 파도가 이는 것도 거기, 바람이
자서 물이 자는 것도 거기, 죽는 것도 거
기, 사는 것도 거기, 밥먹는 것도 거기,
똥누는 것도 거기, 잠자는 것도 거기. 매
사가 그러하네 내가 별달리, 별나게 '내
가 잤다' 하지 않죠? 만날 자는 거니까.
'내가 봤다' 할 수가 없죠? '내가 들었다'
할 수가 없죠? 가정에 항상 만나는
사람도 만날 만나기 때문에 '만났다' 할
수가 없죠.

그냥 그건 말로도 안되는 거예요. 자연
으로 그냥 넘어가죠. 내가 했다. 내가 만
났다. 내가 잤다. 내가 온다. 내가 살고
있다 이런 게 그냥, 그냥 자동적으로 넘
어가지 생각들을 하고 넘어갑니까? 그러
니까 여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
러니 이런 생각 지런 생각 하는 것을 모
두 놓아야 합니다.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
을 놓고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
있는지 다시 한번 진실히 살펴보고 바랍
니다.

마음공부와 병원치료

문 육신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합니다.
건강이 안 좋은 것이 점점 겹겹으로
나타나다 보니 자신이 없어집니다. 스님
께서는 이리 잘 지리 알 그렇게 돌아 다
니는 것은 안 좋다고 하시지만 마음공부
하면서라도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료는
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런지요?

답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천
그러한 모든 걸 종합해서 가르치기 위하
고 어떠한 점도 이즈러지지 않게 가르
치기 위해서입니다.
이것이 떠 데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
고 부처님 말씀만, 우리가 살고 있는 이

아픈데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좀 타서 손
발을 찜질을 해주어서 그걸 한 종지 먹
어주면 어때요? 그것도 대처할 수 있는
방법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의학적으로
볼 때는 천부당 만부당 하거든요.
그러니까 그렇게 급한대로 대처를 할
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한 가정이 살아나
가는데 상식이 아닐까 봅니다. 그러니까
생각이 나는 대로 하되 의식적으로 그리
질 말고 안에서 생명이 모두 작용을
하는 것을 믿고 마음나는 대로 행하세요.
무엇이 좋고 안 좋고를 생각하는 것이
아니라 믿고 맡긴다면 어떤 상황이면 그
자리의 작용임을 믿게 될 겁니다.

참선하려 왔으면 눈물이...

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답장을 주
셔서 목이 메었습니다. 스님께서
발간하신 책은 거의 다 보았는데도 조금
치의 진전도 없는 것 같아 이번 일요일
에 스님 설법하시는 모습을 직접 찾아
보려고 했습니다.

마음이야 한번 친견하고 싶지만 워낙
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 먼발치에서 바
라보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려 합니다.
행주좌와 어느 것도 도 아닌 게 없다고
하셔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
건지 어쩐지 알 수 없어 짧은 시간 자리
에 앉아보았더니 그때마다 눈물이 흐르
니다. 슬픈 감정을 없애고 편안함에도 왜
눈물이 흐르는지요. 스님 말씀을 인터넷
을 통해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
다. 마음은 글썽글썽인데 전혀 감을 잡지
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초초하기
까지 합니다. 저 같은 초발심자를 위한
글을 인터넷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스님의 말씀 말씀이 다 쉬운 언어인데도
재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
니다.

전자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사람
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.
지금의 몸을 태어나기 이전에 말입니다.
그것을 정신계라고 하죠. 그래서 법문을
듣는다가나 하다가 그 이치를 들으니까
예전에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던 생
각이 나고, 본인은 몰라도 스님이 초초공
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거죠. 눈물이
나면서도 속으로는 흥겨우고 흐느껴우
게 되죠.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본인이 지금
찾고 있는 그 정본인이에요. 그 자리를 믿
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. 전자의 업적이
녹는 것이니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.

'무조건 살려야' 관했는데...

문 끝없는 자비심으로 항상 저희들
을 이끌어 주시는 큰스님께 감사올
립니다.

오늘 저의 친구 처남이 17시간동안 3
차에 걸친 뇌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
환자가 무척 작하고 27세에 어린 애기가
들이나 있어 가슴이 너무 아파서 "주인
공... 주인공만이 살릴 수 있어..."하고
관을 했습니다... 그 와중에 환자의 생명
이 위독하다하여 대구지원에 전화를 하
여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"죽이는
것도 살리는 것도 살리라는 뜻이니 믿고
맡겨놓으라"고 하셨습니다... 그러나 저
는 잘못이 없다면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
관을 했습니다.

어렸을 수술중에 죽지는 않았고 의사
선생님의 소생가능성은 모른다 하는 말
을 뒤로하고 새벽에 집으로 왔습니다...
여기에서 제가 잘못 관한 부분이 있다면
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답 그래요. 무조건입니다. 어떤일이
건 그렇게 놓아야합니다. 상대가
어떤 이유로 그런 병을 앓게 되었
건 또는 잘못이 있던 건건 따지지 말고
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.

그러나 지금 앓고 있는 병만을 보는
것이고 그 사람의 전체를 살피는 것은
다릅니다.

그래서 살려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
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그 자리에 믿
고 맡기라는 겁니다. 되고 안되는 데 매
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
는 그 같은 믿음이 중요합니다. 처사님이
관한 방법이 잘못된 건 없지만 공부하다
보면 더 넓게 보고 관하게 될 겁니다.

따지지 말고 경계 받아들이는 믿음 중요 돌아닌줄 알면 찰나찰나 도는 진리도 알아

고 선방을 따로 해놓고 따로 앉는 시간
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앉고 싶
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는 거예요. 숨
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그냥 참선이
거를 어찌 앉았다고 일어나면 다 했다고
할 것이고 앉았으면 참선한다고 할 것이
고 선방에 가면 선방에 왔으니가 나는
지금 참선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
집에 오면 난 집에 왔다고 하니 선은 항
상 조금 갔다 조금 그만 두고 조금 갔다
도로 오고 조금 갔다 도로 오고 이런 형
국이나 마찬가지죠. 항상 선이 돼야할텐
데 그러기 때문에 선은 끊어지죠. 선이라
는 이물조차도 붙지 않는 자리인데도 불
구하고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고 앉았어
야 참선이 된다고하니 말도 안되고 화두
를 어느 큰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야 것이
공부가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
다.

너무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모든 큰스
님네들이 고기를 건질려고 낚시대를 던
졌던 거예요. 좀 사람이 있나 하구선 낚
시대를 던져보니까, 그걸 가지고 미끼를
삼아서 공부하는 겁니다. 어떤분들은 나
를 훔을 불런지 모르지마는 그 진실한
눈물 피 한방울이 아니라면, 오장육부의
땀속에서만이 흘러져 나오는 그 피 한
방울이 아니라면 이 우주에 전율이 흐르
는 그 대도의 이치를 아마도 깨닫게 모

진리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대로
부처님 법이고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
다. 백작장 하나 사이를 놓고 얘기합니
다. 지금, '내가 깨우쳐야지, 깨우치지 못
했으니가 중생이지,' 이라고 '내가 깨우
쳐야 될 텐데 깨우치지 못한다' 이런 생
각을 모두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
서 본래 불성도 가지고 있으며, 즉 불성
이 자부처니까 자부처도 자기한테 있으
며 또는 중생이라는 육체도 있습니다. 그
런데 말입니다. 육체하고 정신하고 어떻
게 들이겠습니까?

둘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우리가 진
리가 지금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
가고 있음을 알게 될겁니다. 그런데 어떤
사람 봤을 때 내가, 내가 봤다고 할 수
있겠습니까? 너무 많이 보는데, 너무 많
이 들었는데 내가 어떤 거는 듣고 내가
어떤 거는 안 들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
까?

그래서 여러분은 고등동물로서 갖추어
가지고 본래 나와 있다, 갖추어졌다하
는 거고 또 여러분이 갖추어진 대로 지금
살고 있습니다. 듣고 보고 내고, 들이고
내고 들이고 내고 여여하게 살고 있는데
도 불구하고 '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
렇게 더딘가, 깨우치지 못했다, 중생이
다'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
그 마음 자체 쓰는 것이 벌써 차원이 저

데 변연히 알면서도 '너 진짜 있다면 나
와봐' 할 때도 있고, 몸이 아픈 것도 약
이 없어서도 아닙니다. 밥도 약이니까요.
그러니까 그냥 걸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
먹고 싶으면 먹고 또 정히 내가 하고 싶
다 하는 것도 법이니까요. 어떤때 꼭 소
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법입니다.
그것도 자기의 자성의 법이죠. 옛날에 이
런 적이 있어요. 어떤 신도가 배가 아파
서 팔작팔작 튀고 아단법석이 났는데,
"스님, 스님! 어떡할까요?" 전화가 왔어
요. "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좀 타서 먹
고, 따뜻한 소금물로 배에다가 찜질을 좀
해줘." 그런데 그걸 병원에서 볼 때는 잘
못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죠. 대장
이 꼬였는데 말입니다. 이것은 그냥 오히
려 망가뜨리는 일이지, 나한테 그러기 전
에 병원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더니 대
장이 꼬여서 빨리 큰 병원에서 가보라
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
를 합니다.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
나았어요.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법이다,
자신이 진짜법이다 할게 없이 자기가 생
각해서 이렇게하면 괜찮겠다 할 때 그
진짜 법이예요. 생각을 해보세요. 맹장이